

교수는 적합한 선정자인가*

- 부산대학교 영문학 전공자를 중심으로 -

Are Professors Good Selector?

- The Case of Professors of English Literature at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

김정근(Jung-Gun Kim)** · 구영미(Young-Mi Ku)***

〈목 차〉

- | | |
|------------------------|----------------------|
| I. 무엇이 문제인가 | 2. 도서관 자료선정에서 교수의 기여 |
| II. 사례도서관 기본장서평가 | 1) 교수의 자료이용 행태 |
| 1. Samuel Beckett 장서평가 | 2) 교수의 추천에 의한 자료선정 |
| 2. T. S. Eliot 장서평가 | 3. 교수는 적합한 선정자인가 |
| 3. D. H. Lawrence 장서평가 | IV. 균형있는 자료선정을 위한 방안 |
| III. 교수는 적합한 선정자인가 | - 사서의 주도성을 중심으로 - |
| 1.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수서업무 | |

초 록

대학도서관에서의 자료 수집은 교수와 학생의 요구 파악, 교과과정 조사, 학계의 연구동향 파악, 도서관 장서구성 평가 및 이용상황의 분석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은 실제 이러한 분석에 앞서 교수요인에 의해 많이 영향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대학교 영문학전공자들을 대상으로 교수가 실제로 대학도서관 장서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보았다.

주제어 : 대학도서관, 기본장서, 선정자로서 교수

Abstract

The university library is supposed to build its collection in an organized and controlled manner to achieve its own goals for information services, and the book selection is an essential element of librarianship to support the university process of research and education effectively.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ulty influence on the book selection process of the university library. The researcher concludes that too much hegemony in the hands of professors is not appropriate and at least part of it should be handed over to librarians.

Key Words : University Library, core collection, professor as a selector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gkim@hyowon.pusan.ac.kr)

*** 천안대학교 도서관 사서

· 접수일 : 2001. 2. 11 · 최종심사일 : 2001. 2. 24 · 최종심사일 : 2001. 3. 8

I. 무엇이 문제인가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인 교수와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서구성은 도서관봉사와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대학도서관은 이러한 이용자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학부생들의 학습을 돕고 과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기초적 학습자료와 대학원생들의 연구자료 및 학습지도와 연구를 위한 교수용 전문도서, 기타 이용자를 위한 자료 및 일반교양도서 등 일정량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대학도서관의 목표인 교육과 연구 지원을 위해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서로 어떤 주제 학문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장서를 기본장서(core collection)라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 따르면 기본장서란 균형있고 권위있는 장서를 이루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도서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특정 학습분야의 학습이나 연구에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도서류로 학습 지원을 위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¹⁾ 그리고 윤희윤은 대학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장서로 각 학과(전공)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교재, 기초이론서, 핵심잡지, 주요 참고자료, 정기간행물과 문서자료,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²⁾

대학도서관에서 자료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적으로 학생과 교수의 수, 대학의 목적, 교과과정, 장서의 규모, 도서구입비 등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외국의 선행연구를 통해 얻어낸 외국의 도서관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한국 대학도서관의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장서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프리드만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³⁾

나와 함께 했던 부산대학교 도서관 사서에 따르면, 한국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은 거의 전부가 각 학과의 교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부산대학교 82

1) 사공철 등 편저,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pp. 53-54.

2) 윤희윤, “페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장서개발의 기본방향과 전략적 방안”, 《도서관》 Vol. 54, No.2(1999. 여름), p. 14.

3) 이것은 1993년 5월 2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미국 뉴욕주 Westchester County 38개 공공도서관의 자료수집, 목록작업, 전산화 등을 지원하는 Westchester Library System의 관장인 프리드만 박사(Dr. Maurice Freedman)를 초청하여 ‘부산대도서관 외국전문가 초청 기술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세미나 기간동안 그가 부산대학교도서관의 전산화문제, 장서개발문제 그리고 이원화운영문제를 논제로 삼아 관련 담당사서와 질의, 토론하였던 내용과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로서,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현실을 외국 도서관 전문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Maurice J. Freedman, “프리드만 보고서(Dr. Maurice J. Freedman Report)”, 《도서관소식》 제6호(1993. 11), pp. 9-48.

개 학과는 도서 예산으로 각 1,000,000원을, 800명 이상의 교수는 도서 예산으로 개인당 150,000원을 할당받는다고 한다. 이 예산은 각 학과와 교수에 의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구입하는데 사용되고, 그들이 추천한 도서와 연간물은 도서관에서 모두 주문을 하게 된다.⁴⁾

프리드만은 부산대학교 장서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교수에게 과다하게 부여된 자료 선정권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러한 교수에 의한 도서추천의 위험요소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대학이라는 넓은 차원에서 보면, 교수에 의한 자료선정은 (1) 도서관에 필요한 기본장서(Core Collection)가 수집된다고 보기 힘들며, (2) 교수들의 도서 선택과정에서는 두 교수가 동일한 장서를 선택할 수도 있다. (3) 또한 교수는 도서관 장서로서 부적당한 오래된 장서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4) 무엇보다 교수에 의해 선택된 장서는 대학 내의 교육, 연구, 출판에 위한 전체적인 도서관 요구와 들어맞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⁵⁾

그는 보고서를 통해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장서개발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며, 도서관 전체 장서의 계획적이고 일관성있는 수집을 위해 도서관 사서가 장서 선정에 더 많이 개입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장서구성에 있어서 교수의 자료선정권에 대하여 지적한 다른 논문이 있어서 그 일부를 소개해 본다. 이 글 역시 자료선정에 있어서 교수에게 주어진 도서추천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부산대 도서관 장서를 구성하는 주요한 영향력은 도서관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수의 연구실, 정확히 말하자면 교수가 추천하는 추천도서 카드에서 나온다. 교수진은 도서관의 모든 종류의 자료를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교수진에서 자료선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제전문가의 추천으로서 자료선정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본적인 핵심자료는 제외되고 지엽적인 한 두사람만이 이용하는 특정 전문자료에 추천이 집중된다는 문제점이 있다...(중략)...이런 식의 장서구성이 계속되면 장서는 학문연구의 단계에 따라 내용이 진전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관심사에 좌우되어 버리고 결과적으로 주제간의 단절, 자료의 편중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결코 효율적인 장서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⁶⁾

4) 위의 글, p. 14.

5) 위의 글, p. 14.

6) 오영아, "대학도서관 여성학장서 연구: 부산대학교 도서관과 부산여자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5. pp. 72-73.

미국의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도서관 자료선정의 참여에 있어 1930년대까지는 자료선택의 대부분을 교수가 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⁷⁾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교수 선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더불어 사서가 자료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고조되어 감으로써, 점차 자료선정이 도서관에 속한 활동으로 인식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⁸⁾ 이에 비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80-90%의 대학도서관이 교수에 의해 자료가 선택, 수집되었고,⁹⁾ 현재도 국내서는 교수와 사서에 의해 선정되지만, 국외서의 경우는 대부분 교수에 의해 우선적으로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⁰⁾

이러한 지적을 배경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의 장서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교수의 도서추천 요인을 중심으로 도서관 기본장서 문제를 풀어 가 고자 하였다. 이것은 위의 인용문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 서서 업무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도서추천을 통한 교수의 자료선정이 도서관의 기본장서 부족 현상과 일차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부산대학교 도서관 뿐만 아니라 교수선정에 의해 장서가 구성되고 있는 국내 여러 대학도서관의 장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출구가 되리라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대학교 도서관 영문학 장서를 대상으로 도서관의 장서구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실제 기본장서를 평가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Samuel Beckett, T. S. Eliot 및 D. H. Lawrence를 중심으로 하였는데, 이는 부산대학에서 영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교수들 가운데서 위의 작가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자가 있으며, 자료선정에서 교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려고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장서구성과 교수추천과의 상관성을 살펴보기에 용이하리라 보았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위에 언급한 세 작가의 기본장서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지 대조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먼저 이들 작가를 연구하는데 기본이 될 수 있는 장서들을 취합하여 목록을 작성한 후 그것이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정도를 살펴보고, 도서관의 연구 지원 수준을 평가한다. 그리고, 장서구성과 교수 도서추천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한 기본장서 목록을 교수개인의 장서에서도 소장율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장서평가를 위한 목록은 미국의 대학도서관에서 기본장서 구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서지의 일종인 *Books for College Libraries*¹¹⁾ (이하 BCL로 표기)를 참고하여 작성하

7) J. Perian Danton, *Book Selection and Collection: a Comparison of German and American University Libraries*. New York : Columbia Univ., 1963. pp. 62-63.

8) David O. Lane, "Selection of Academic Library Materials, A Literature Surve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 29(May 1968), pp. 364-372.

9) 이승원, "대학도서관의 도서선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4. p. 19.

10) 유경희, "대학도서관의 이프루벌 플랜 활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 p. 53.

였다. BCL은 대학도서관 자료선정시 선택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표준 목록으로 대학도서관에 꼭 필요한 모든 주제분야를 망라하여 기본장서 50,000권을 선정하여, LC 분류체계에 의해 정리해 놓은 것이다. 대학도서관에서 교육과 연구 지원을 위해 꼭 갖추어야 하는 기본장서를 영문학의 경우, 시대와 지역, 작가별로 구분하여 소개해 놓았으므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영문학의 기본장서를 평가하기에 적절하리라 보았다. 한편 이것은 미국의 대학도서관을 위주로 한 자료 선택도구이므로 동양서는 제외되었고, 제3판의 경우 1988년 이전의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지 목록으로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기본장서의 소장 파악 자체보다 교수와 관련한 장서구성상의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과 기본장서 평가에 주안점을 두었으므로 이를 위한 평가목록으로 손색이 없으리라 본다.

II. 사례도서관 기본장서평가

본 장에서는 영문학 연구 지원을 위한 기본장서를 평가하기 위해서 서론에서 제기한 것과 같이 Samuel Beckett, T. S. Eliot, D. H. Lawrence의 세 작가와 관련한 기본 장서를 대상으로 교수의 도서추천과 관련하여 평가해 보았다.

1. Samuel Beckett 장서평가

1906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Beckett는 부조리극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주로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하면서 불어로 극작을 한 후, 다시 영어로 옮겼다. 1927년 더블린의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한 후, 다음해 가을 파리의 고등사범학교의 교환 교수로 부임했다가 다시 모교인 트리니티 대학에 프랑스 문학 강좌를 개설하여 강의했다. 그러나 1932년 갑자기 사직한 후 긴 방랑 생활을 하다가 결국 파리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¹²⁾ 1969년 그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대표작인 *Waiting for Godot*(1955), *Endgame*(1957), *Happy Days*(1961) 등을 통하여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상실함으로써,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인간의 존재를 나타

11)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Books for College Libraries: a Core Collection of 50,000 Titles*.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8.

12) 전대웅, 『현대 영미 문학의 이해』. 서울 : 한신문화사, 1997, pp. 245-257.

내고자 하였다.

BCL 3판에 수록된 Beckett 관련 도서는 영어작품 19권과 불어작품 9권으로 총 28권이였다. Beckett은 먼저 불어로 작품을 쓴 후 영어로 다시 옮겨 쓴 것이 대부분이므로, 영문학과 불문학 모두에 조예가 깊은 작가라 볼 수 있다. 그의 작품은 BCL에서도 영어와 불어 작품이 각각 영문학과 불문학에 수록되어 있으며 저자에 의해 쓰여진 책이 19권, 그리고 다른 작가가 편집하거나 비평한 것이 9권이다. 이 가운데 부산대학교 도서관에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자의 영어작품 3권과 불어작품이 2권으로 총 5권이 소장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전공자 R교수의 개인 장서를 조사한 결과, BCL 3판에 수록된 도서를 모두 소장하고 있었다. 결과를 통해 볼 때, 부산대 도서관에 소장된 Beckett 관련 장서는 기본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Beckett 관련 BCL수록항목 소장분석 * ()은 소장율

	BCL3판 수록 수			도서관 소장 수			교수개인 소장수		
	저자	타작가	합계	저자	타작가	합계	저자	타작가	합계
영어작품	10	9	19	3	0	3(16%)	10	9	19(100%)
불어작품	9	0	9	2	0	2(22%)	9	0	9(100%)
합계	19	9	28	5	0	5(18%)	19	9	28(100%)

2. T. S. Eliot 장서평가

T. S. Eliot은 미국 태생이긴 하지만 영국으로 귀화하여 1차 세계대전 이후 일어난 영시단의 모더니즘 운동을 주도하면서 현대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1917)이라는 시에서 현대 생활의 권태와 공허, 환멸을 냉소적이고 풍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The Waste Land*(1922)는 1차 대전 후의 유럽의 황폐상과 현대인의 정신적 불모성과 허무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는 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비평가로서, 20세기를 대표하는 문인이며, 극작가로서 *Murder in the Cathedral*(1935), *The Family Revolution*(1939)과 같은 훌륭한 시극도 남겼다.¹³⁾

Eliot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간주되는 도서로 BCL 3판에서는 저자의 작품 4권과 타작가에 의한 저서 16권으로 총 20권을 수록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6권을 소장하고 있었고, 전공자 K교수 개인은 18권을 소장하고 있었다. 앞선 작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Eliot 역시 교수 개인 장서의 소장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3) 이창배, 『T.S.엘리어트』. 서울 : 민음사, 1978. pp. 32-56.

<표 2> Eliot·관련 BCL수록항목 소장분석 *()은 소장율

	BCL3판 수록 수			도서관 소장			교수 개인 소장		
	저자	타작가	합계	저자	타작가	합계	저자	타작가	합계
작품	4	16	20	1	5	6(30%)	3	15	18(90%)

3. D. H. Lawrence 장서평가

광부인 아버지와 청교도 신앙을 가진 지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Lawrence는 유년기 때부터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나게 된다. 그는 문학을 통해 인간관계를 탐구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성에 근본을 둔 남녀의 사랑에 중점을 두었다.¹⁴⁾ 주요작품으로는 *Lady Chatterley's Lover*(1928)외에 *Sons and Lovers*(1913), *The Rainbow*(1915), *Women in Love*(1920) 등이 있다.

Lawrence와 관련하여 BCL 3판에 수록된 도서는 총 52권으로 작가의 작품과 관련한 저자의 저서가 23권, 다른 작가의 저서가 3권으로 총 26권이 수록되어 있고, 서지·비평 중에서 저자 자신의 것은 2권, 타작가에 의한 것은 24권으로 총 26권이였다. 이 중에서 부산대학교 도서관에는 작품 4권과 서지·비평이 2권으로 단지 6권만이 소장되어 있었고 전공자 C교수의 경우 저자의 작품이 23권, 서지·비평이 18권으로 총 41권을 소장하고 있었다. 이것은 도서관 소장의 7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표 3> Lawrence 관련 BCL수록항목 소장분석 *()은 소장율

	BCL3판 수록 수			도서관 소장			교수개인 소장		
	저자	타작가	합계	저자	타작가	합계	저자	타작가	합계
작품	23	3	26	4	0	4(15%)	22	0	22(85%)
서지·비평	2	24	26	0	2	2(8%)	1	18	19(73%)
합계	25	27	52	4	2	6(12%)	23	18	41(79%)

지금까지 평가한 세 작가의 기본장서는 도서관보다 교수 개인 연구실에 월등하게 많이 소장되어 있었다. 대학도서관이 각 학문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대학 내 정보봉사 기관이라 한다면 이러한 기본장서는 적어도 모두 소장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장서들이 교수 개인에게는 대부분 소장되어 있으나, 정작 장서가 구축되어야 할 도서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14) 강정석, 『DHLawrence의 生命의 根源』, 서울: 한신문화사, 1990. pp. 24-40.

Ⅲ. 교수는 적합한 선정자인가

본 장에서는 II장에서 행한 장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 기본장서 문제를 앞서 제기한 교수 요인을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도서관 자료선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 업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단행본과 연속간행물과 관련한 수서업무를 간단히 살펴본 후,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부산대학교 영문학 전공 교수를 중심으로 면담을 통해 그들이 자료선정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1.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수서업무

현재 부산대학교 도서관 수서과에서는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이하 연간물로 표기)은 각각 분담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단행본 자료선정의 과정에 참고도서와 비도서자료 등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단행본의 경우, 자료수집을 위해서 수서과에서는 매년 “수서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도서관에서 수집되고 있는 단행본은 대부분 각종 추천에 의해 구입되고 있으며, 교수와 학생, 사서 등 대학 구성원 전체가 희망도서를 추천함으로써 도서관 자료선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교수는 “수서계획”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단행본 선정에 있어서 추천권을 우선적으로 부여받는다. 교수는 자신의 전공과 학문 분야에 따라 연구와 교재용: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등의 다양한 자료를 추천할 수 있으며, 개인당 연간 300,000원의 도서추천금액을 배당받는다.¹⁵⁾ 이 한도 내에서 교수는 수시로 도서관 홈페이지나 도서관 검색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도서를 추천하거나 도서추천 카드를 통해 추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추천된 책은 서지 사항 조사와 도서관 소장 복본과악 과정을 거쳐 일주일내 두 번씩 전자 주문을 통해 구입하게 된다.¹⁶⁾ 교수는 이러한 도서추천 외에 지정도서제¹⁷⁾를 활용하여 도서관 자료선정 과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교재 자료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장서는 대부분이 지정도서제도를 활용하여 매학기가 시작하기 전, 도서관에서 다음학기 교수계획표를 취합하여 수록된 교재와 참고도서를 구입하므로써 확보된다. 이처럼 교수는 도서추천을 통해 직접 도서관 자료선정에

15) “수서계획”, 부산대학교 도서관 수서실 내부문서.

16) 사서 K와의 면담 (2000. 7. 7), 부산대학교 제1도서관 수서실.

17) 지정도서란 교수가 학생들에게 조사하거나 읽게 하여야 할 과제를 준 도서관장서로서, 학생의 집중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측에서 별도로 내어주고 이용케 하는 장서이다. 윤병태, “대학도서관의 대 교수 봉사”, 《국립대학도서관보》 제6집(1988), p. 9.

참여할 수도 있으나, 교수계획표에 수록된 교재나 참고 문헌도 간접적으로 도서관 자료의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는 1999년도 단행본 선정현황을 선정 주체에 따라 교수, 학생, 사서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자료선정 가운데 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간 52% 정도이며, 다음이 사서, 학생 순이다. 교수의 경우, 국내서는 대부분이 교수계획표에 수록된 교재자료에 해당되며, 국외서와 동양서는 교수가 직접 추천한 것으로 개인 연구서가 많다. 그리고 사서는 국내 교양자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외서, 특히 서양서 선정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추천자료는 교재, 교양자료들로 구성되지만 사서의 경우와 같이 국내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표를 보면, 단행본 선정에 있어서 교수의 영향요인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에서 구입되고 있는 국외서의 대부분이 교수 추천에 의해 구입되는 도서이며, 도서관 자료를 가운데 강의 교재용 자료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¹⁸⁾ 사서가 선정하는 장서도 적지 않으나 이것은 체계적인 장서개발을 위해 구축되기보다는, 각 주제관의 참고사서가 이용자의 요구를 수렴하여 수서담당 사서에게 추천하는 경로를 통해 수집되는 것이어서 순수하게 사서가 선정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¹⁹⁾

<표 4> 1999년도 단행본 자료선정 현황 * ()은 종 수

구분	국내	동양서	서양서	합계	선정비율(%)
교수추천	6,775(1,922)	186(90)	955(789)	7,916(2,801)	52
학생희망	1,745(728)	9(9)	223(219)	1,977(956)	13
사서추천	5,240(2,357)	38(36)	24(21)	5,302(2,414)	35
합계	13,760(5,007)	233(135)	1,202(1,029)	15,195(6,171)	100

부산대학교에서는 연간물은 구미·일본·중국 및 국내의 잡지류와 학회지, 신문 등을 포함하며, 수집을 위한 업무 규정으로 “연속간행물 수서기준”이 있다. 여기에는 연속간행물 수서의 의의, 수서정책 일반, 수서방침과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긴 하나,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연간물 개발을 위한 정책은 빠져 있다. 연간물 역시 단행본과 마찬가지로 구입과 기증 등의 방법을 통해 수집되는데, 선정방식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단행본의 경우는 매년 추천에 의해 구입이 되고 있으나, 연간물의 경우 기존 연간물의 계속구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증중이나 교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즉 출판사 사정으로 구독하던 연간물이 폐간되던가, 도서관에서 구독하던 특정분야의 연간물을 이용하던 교수

18) “1999년 도서비 집행 내역”, 부산대학교 도서관 수서과 내부문서.

19) 1993년 당시의 자료선정 현황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로여서 교수추천도서가 66%를 넘고 있으며, 사서가 선정한 자료는 전체의 20% 밖에 되지 않아서 그 선정량이 교수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중성, “부산대학교도서관 교육학장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4. p. 102.

가 사임을 하거나 정년퇴임을 하여 더 이상 그 연간물을 구독할 필요가 없을 경우 구독을 중지하게 된다. 그리고 증종을 하는 경우는 기존의 학과에 새로운 연구분야를 전공하는 교수가 초빙되거나 신설학과가 만들어지는 경우 등이다.²⁰⁾ 선정방식은 차이가 있으나 연간물에 있어서도 단행본과 마찬가지로 교수 개인의 영향력이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산과 관계없이 연간물이 증종되는 경우도 있긴 하다. 그것은 첫째, 5년 이상된 기존 학과에서 새로운 주제분야를 가진 신규임용교수가 있을 경우 본인의 추천에 의하여 외국연간물 1종을 구입할 수 있다. 둘째, 신설학과의 경우 학과의 추천에 의해 외국연간물을 구입할 수 있다. 셋째, 도서관장의 재량에 의하여 교수와 학생들에게 전문성과 시사성에 알맞는 유익한 자료는 구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회지는 예산과 관계없이 계속 개발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 증종이 발생할 시의 구독우선순위는 법기준령과 신설학과의 순이다.²¹⁾ 따라서 연간물은 이용자의 실제 요구와는 거리가 먼 개인 추천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고, 특히 한 번 결정되고 나면 증종하거나 교체가 쉽지 않다.²²⁾ 그리고 증종의 기준에 있어서 도서관장의 재량 또한 영향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도서관 자료선정에서 교수의 기여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자료선정에 있어서 단행본은 물론, 연속간행물에 이르기까지 장서 선정과정에 있어서 교수가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절에서는 교수들이 도서관 자료이용과 추천장서를 선정하게 되는 배경, 그리고 도서를 추천함에 있어서 우선 순위와 선정도구는 어떤 것인지 영문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살펴보았다.

1) 교수의 자료이용 행태

교수들의 추천도서 선정은 평소 자료이용과 관련한 개인적인 습관과 필요한 장서를 입수

20) 사서 J와의 면담(2000. 8. 17), 부산대학교 제1도서관 1층 로비.

21) "연속간행물 수서기준", 부산대학교 도서관 수서실 내부문서.

22)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구독하고 있는 외국학술지를 대상으로 열람과에서 주도하여 타당도조사와 신규추천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전체 31개의 주제영역별로 나눈 뒤, 대상학과에 현재 구독하고 있는 해외학술지 리스트를 보내어 각 학과교수의 이용도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이용도를 평가하고 해외학술지에 대한 신규구독희망 수요조사도 겸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각 학과의 교수진을 대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타당도 조사에 있어 약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조사의 결과로 인한 구독증지와 신규구독 장서 역시 교수진들의 추천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간물 장서선정에 있어서 교수의 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신주영, "외국학술지 구독타당도 조사 및 신규추천조사", 《도서관소식》 제8호(1995. 12), pp. 57-77.

하는 과정, 그리고 소속대학 도서관 장서의 질적, 양적 현황과 평소 활용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평소에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들이 부산대학교 도서관 장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들어보았다.

가끔 도서관 서가를 둘러보는데 책이 참 없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로렌스의 경우, 기본 저작조차도 많이 없다. 단행본은 물론이고, 연간물 중 몇 개는 참고하긴 하지만 도서관에서 꼭 구독했으면 하는 책들이 예산상의 이유로 구독할 수 없다고 한다. 참고자료의 경우는 값이 모두 비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비하기가 참 부담스럽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알아서 좀 구비했으면 하지만 찾는 책들이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²³⁾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가지는 않고 학생들에게 시키는 편이다. 요즘에는 도서관 장서의 질이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이전에는 10건 검색을 하면 하나 정도 소장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답답해서 차라리 구입해서 보는 편이었다. 이런 것이 버릇이 되어 잘 이용하지 않는다.²⁴⁾

면담을 했던 대부분의 교수들이 도서관 장서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²⁵⁾ 그리고 교수들이 평소에 필요로 하는 자료는 당시의 연구주제와 관련한 것이었다.

추천장서는 당시 연구 논문의 주제에 따라 달라진다. 주로 관련 저작들을 중심으로 많이 본다. 컴퓨터에서 저널을 검색하기도 하지만 필요한 책을 많이 구해서 본다. 얼마 전에는 프로젝트 때문에 연구하는 작가의 여행서와 서신들, 동양 사상과 관련된 책이 필요했다.²⁶⁾

연구 목적 외에는 평소 강의준비를 위해 자료를 구하게 되는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

23) 교수 C와의 면담 (2000. 8. 7), 교수 개인연구실.

24) 교수 R과의 전화면담 (2000. 8. 16).

25)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교수들을 상대로 도서관 이용현황과 자료활용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 조사결과에 의하면 교수들이 자료를 구하는 곳은 본인소장자료(32%)에서가 가장 많았고, 본교도서관(26%), 타대학도서관(13%), 인터넷(11%), 국내외서점(10%), 학술정보센터(8%)의 순이었다.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가 빈약하다(68.5%)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다음이 본인소장자료가 많아서(19%), 거리상의 불편, 검색의 어려움 순이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도서관 자료가 교수의 연구를 지원하기에는 그 수준이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익봉·장정순, "부산대학교 도서관 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서관소식》 제8호(1995. 12), pp. 36-37.

26) 교수 C와의 면담 (2000. 8. 7), 교수 개인연구실.

는 형태별로 다양했다. 단행본을 선호하는 교수도 있으나, 저널류와 연구논문 등이 주를 이룬다. 자료입수에 있어서 이전과 다른 형태가 있다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를 구하는 것이었다. 정보의 바다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속에서 영문학 연구를 위한 다양한 자료를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워낙 자료가 충실하게 구비되어 있어서 작품 원문에서부터 비평, 참고사전류는 물론, 학위논문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것을 거의 다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홈페이지가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도 학회를 중심으로 홈페이지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연구실에 앉아서도 원하는 자료를 시간만 있다면, 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는 교수도 있었다.²⁷⁾

교수들이 자료를 입수하는 주 방법은 자료를 직접 구입하는 방법이었다. 자료구입 경로는 국내 서점에서부터 인터넷 서점, 외국서점 등 다양했는데, 면담을 통해 만난 대부분의 교수들이 외국에 나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외국의 대학도서관이나 서점을 방문하여 평소에 필요로 했던 자료들을 구입하거나 연구관련 분야 자료들을 복사하는 방법을 취했다.²⁸⁾

강의 준비와 연구에 자료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주로 외국에 나갈 기회를 많이 활용하여 구입하는 편이다. 그리고 저널류는 외국 대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직접 복사해 온다. 외국서나 개인적으로 구하기 힘든 것은 도서관에 추천의뢰를 하기도 하지만 주로 외국에 나갈 일이 있을 때 기회를 이용하여 많이 입수하고 있다.²⁹⁾

국내외 서점을 통한 구입 외에는 다른 국내의 대학도서관이나 특수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다. 자료의 소장처를 검색하여 그곳에 근무하거나 공부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수하거나 직접 도서관에 문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장처가 가까운 곳일 경우는 직접 가서 구해오기도 했다.³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입하거나 다른 소장처에서 구하기가 개인적으로 어려울 경우, 도서관에서 그 도서를 구입하도록 추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저널을 포함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무한하다. 요즘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워낙 자료가 많아서 인터넷상에서 검색해서 플텍스트가 있는 경우는 그냥 사용하고 없을 경우 Amazon이나 다른 인터넷 서점을 통해 자료를 신청해서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편이다. 아니면 서지 사항을 적어서 도서관에 추천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일년에 예산이 정해져 있으므로 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³¹⁾

27) 교수 P와의 면담(2000. 8. 14), 교수 개인연구실.

28) 교수 R과의 전화면담(2000. 8. 16).

29) 교수 K와의 면담(2000. 8. 11), 교수 개인연구실.

30) 교수 C와의 면담(2000. 8. 7), 교수 개인연구실.

교수들의 자료이용 방법은 전체적으로 개인 장서구비를 통한 직접적인 활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면담에 의하면 교수들은 연구에 필요한 장서를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그것을 개인 연구실이나 가까운 곳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참고하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행태는 석·박사 연구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자료수집은 교수가 되고 정년퇴임할 때까지 지속되므로 교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양은 상당할 것이라 보고 있다.

연구를 하다보면 개인적으로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것이 편리하다. 그래서 나의 경우는 개인장서를 주로 이용하는 편이고 전공관련 장서를 기회가 될 때마다 수집하고 있다. 도서관 장서가 많이 개발되고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거리상의 불편함이나 내가 필요로 하는 장서는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³²⁾

도서관 장서도 이용하긴 하지만 주로 개인장서를 이용하고 있다. 교수들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고, 가까이 두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³³⁾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교수들은 그들이 연구나 강의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그렇게 수집한 개인소장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영문학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장서들은 모두 개인이 소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고, 도서구입이 힘들거나 그 소장처를 알 수 없을 경우에 도서추천제를 활용하여 도서관에 추천한다고 하였다.

2) 교수의 추천에 의한 자료선정

면담을 통해 만나본 대부분의 교수들은 도서관 자료추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추천에 흥미를 잃었다고 말하는 교수도 있긴 했는데, 그것은 연구 자료의 지속적인 부족 현상과 함께, 교수 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상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서양서나 원서를 주로 참고해야 하는 영문학 교수의 경우, 주로 국내서를 참고로 하는 다른 학과에 비해 도서비로 할당된 금액이 서양서를 구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좀 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잘 활용을 하지 않는다. 사실 주어진 예산으

31) 교수 P와의 면담 (2000. 8. 14), 교수 개인연구실.

32) 교수 R과의 전화면담 (2000. 8. 16).

33) 교수 J와의 면담 (2000. 8. 16), 교수 개인연구실.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2권 제1호)

로는 고가의 책일 경우, 한 두 권 추천하고 나면 끝이고, 그 한 두 권을 추천하기 위해 도서추천카드를 기록하기란 번거로운 일이다. 국문과나 다른 동양서를 많이 보는 학과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영문학의 특성상 원서를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실은 추천에 흥미를 못 느끼고 있다.³⁴⁾

교수들이 추천하고 있는 자료는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책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대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수개인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추천하고 있었다. 이것은 교수 개인의 관심사에 관한 책일 수도 있고, 전공분야 관련 장서도 포함된다. 연구자료 외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리라 보는 자료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긴 했으나 그것은 실제로는 드문 경우이고, 학생들의 강의용 교재는 지정도서제를 통해 별도로 구입되고 있었다.

개인의 연구분야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으로 추천한다. 그래서 기본장서이기보다는 연구용 장서일 경우가 더 많고, 원서일 경우가 많다. 교수들 대부분이 자신의 전공과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중에서 학생들과 장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수 개인에게 배당된 금액으로는 연구서와 기본장서 모두를 추천하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더 많다.³⁵⁾

도서추천시의 우선 순위나 선정도구는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없고, 교수 개인의 취향과 당시의 연구진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³⁶⁾ 일부 교수는 개인 연구실에 우편으로 보내주는 출판사목록을 활용하여 추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장서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기도 하고, 서평지나 외국 출판지를 통해 선정하는 경우도 있었다.³⁷⁾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교수들은 도서관 자료선정에 대부분이 호의적이며 도서추천제를 통해 매년 자료선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추천도서가 대부분 당면한 연구서이기 때문에 기본장서는 추천을 통해 선정되지 않고 있다.³⁸⁾ 따라서 이것은 교수가 과연 적합한 자료선정자인가하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한다.

3. 교수는 적합한 선정자인가

도서관 장서는 대학 구성원 전체의 연구와 학습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주제분야도 광범

34) 교수 R과의 전화면담(2000. 8. 16).

35) 교수 P와의 면담(2000. 8. 14), 교수 개인연구실.

36) 교수 P와의 면담(2000. 8. 14), 교수 개인연구실.

37) 교수 S와의 면담(2000. 8. 16), 교수 개인연구실.

38) 교수 J와의 면담(2000. 8. 16), 교수 개인연구실.

해야 하고, 장서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균형있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960년대까지는 미국의 대학도서관에서도 주제전문가로서의 교수가 장서개발에 책임을 지는 것이 논리적인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도서관자료의 선정자는 교수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다.³⁹⁾ 자료 선정자는 첫째, 현재 간행되는 자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분야의 자료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주제분야의 주요 자료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고 담당분야의 주요 저작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담당분야의 전문출판사를 파악하고 그 출판사의 권위와 명성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담당분야의 자료를 편견없이 공평하게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다섯째, 이용대상계층과 그들의 수준을 파악하는 한편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이용자 조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⁴⁰⁾ 이 뿐만 아니라, 자료선정자는 자료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보조도구의 활용에 대한 이해 및 이용자의 요구와 그들의 환경을 이해하고 당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장서를 파악하여 자료의 강약을 평가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⁴¹⁾ 이러한 자료선정자로서의 자질을 기준으로 볼 때, 사서의 입장에서는 교수의 자료선정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교수는 주제전문가로서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와 독서로 각 주제분야의 학자들과 주요작품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작품이 주제분야에 새로운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또한 강의의 함으로써 학생들이 필요한 과제물과 교과과정의 변동 사항, 그리고 학생들이 꼭 읽어야 할 장서 등을 잘 알고 있다.⁴²⁾ 그리고 교수는 학생들의 도서관 사용에 가장 직접적이고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⁴³⁾

솔직히 사서는 자신의 업무도 있고, 대학 내의 80개 이상 학과 전체 장서구성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하므로 사서 개인이 각 전공 서적을 선정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지난해 초 주제관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청리과에서 관련 학문분야끼리 묶어서 사서가 각 분야의 자료선정을 관리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사서들은 그 학문에 대한 주제 배경이 너무 없기 때문에 서명이나 서평을 보고 책을 선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도서를 선정하여 구입한 후 책을 받아 보았는데, 그런 책 중에서 만화가 나온 적이 있었다. 그 학문에 대한 주제배경이 전혀 없는 상태에

39) Lawrence Thomas, "Tradition and Expertise in Academic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 48(Nov. 1987), p. 489.

40) 홍기철, "자료선정시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국회도서관보》 제29권 2호(1992, 3·4), p. 29.

41) 김병주, "대학도서관 장서개발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보》 제31호 4권(1994, 7·8), p. 52.

42) 이정원,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의 참고도서 선정업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8. p. 14.

43) Wallace John Bonk & Rose Mary Magrill, *Building Library Collection* 5th ed. Metuchen, N.J. : Scarecrow Press, 1979. p. 30.

서 그럴듯한 서명만 보고 선정한 것이 빚어낸 결과였다. 그리고 한 번은 사서가 선정을 해서 수서과 앞에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쌓아놓은 책을 어떤 교수님이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쌓여 있는 책 가운데 자신이 아는 저자는 세 명밖에 없더라는 것이다. 아무리 서평이나 서지를 보고 선정을 하더라도 그 주제에 대해 문외한인 사서는 자료선정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책을 구입하고 나서 보면 책표지는 번듯해 보이고 서명도 그럴싸 해보이긴 하지만 예산을 들여서 그런 책을 구입하기보다는 도서관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서를 전문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⁴⁴⁾

이런 일화들을 보면 교수진이 학문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현장 사서보다 더 이용자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자료를 선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자료선정자로서 교수는 사서에 비해 도서관 장서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공 주제분야나 주 연구분야 자료를 편향되게 추천하는 경향이 있다.⁴⁵⁾ 그리고 사실상 교수들은 연구와 강의준비, 학생상담, 교내 각종 위원회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료선정업무를 수행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와 면담을 바탕으로 교수의 도서추천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첫째는 자료선정 현황을 통해 보았듯이 도서관 전체 장서에 있어서 단행본과 연간물 모두 교수에 의한 선정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단행본 자료구입 현황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교수가 추천한 장서가 일년 전체 단행본 자료선정의 절반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이며, 특히 서양서를 비롯한 외국서 구입에서는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⁴⁶⁾ 부산대학교의 경우, 단행본 수서를 위한 “수서계획”(연간물의 경우, “연속간행물 수서기준”)을 제외하고는 도서관 장서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교수의 추천에 의한 자료선정은 도서관 전체 장서구성의 불균형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단행본 뿐 아니라 연간물 선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재로서는 도서관 전체이용자를 생각할 때 도서관 장서를 교수의 요구에만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으므로 학생들과 미래의 이용자들을 고려하지 못한 방향으로 장서가 구성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앞서 면담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각 학문에 대한 기본장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은 교수들이 모두 소장하고, 추천을 하지 않으므로, 기본장서가 도서관에 수집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II장의 장서평가를 통해 보았듯이 각 작가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장서 리스트에서 도서관은 겨우 12-30% 소장하고 있지만, 교수들은 대부분 다 소장하고 있었다. 교수추천에 의해 구입된 도서는 추천한 교수외에는 그 선정 가치에 대해 평가할 수 없

44) 사서 S와의 면담(2000. 9. 5), 부산대학교 제1도서관 1층 로비.

45) 김종성, 앞의 글, p. 114.

46) “1999년 장서구입현황”, 부산대학교 도서관 수서과 내부문서.

으며, 이용면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교수에 의해 선정된 장서는 유통만 된다면 구입하고 있으므로⁴⁷⁾, 교수개인에게 할당된 일년 예산은 실제로 도서관 자료구입비라기보다 교수 개인의 자료 구입비에 가까운 의미를 가진다.

도서추천제의 세 번째 문제는 도서관 장서의 개인장서화라는 측면에서 도서관 자료의 심한 불균형 현상을 낳게 된다는 점이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과 연구목표를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각종 정보와 지식을 지원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내의 서비스 기관으로서, 도서관을 구성하고 있는 장서는 한 개인의 필요에 의해 구입되고 축적되어서는 안된다. 현재의 도서추천제는 도서관 자료선정에 있어서 교수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로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관행으로 말미암아 일부 교수들은 이것을 단순히 하나의 관행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교수가 자료선택에 단순히 관행적으로 참여할 때는 지적 불균형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연구과제에 필요한 자료만을 추천하는 폐단이 생기며, 최신 자료에 대한 과도한 선호 및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⁴⁸⁾ 나아가서 이러한 편견은 도서추천제를 당 도서관의 전체적 장서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놓여진 욕구만을 채우는 데 이용함으로써 장서의 심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⁴⁹⁾

마지막으로 교수에 의한 도서추천은 체계적인 도서관 장서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서개발은 수집계획과 실제 수서, 평가의 세 단계로 상호연결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⁵⁰⁾ 장서개발이란 도서관의 목적과 단기 목표, 우선 순위에 따른 수집계획을 수립한 후, 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서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으로 수집한 장서를 도서관의 목적과 목표에 관련시켜 평가하는 단계로 순환된다. 따라서 장서개발은 도서관 자체가 가진 목표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성있는 자료선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단행본 자료선정에서 보았듯이 교수가 전체 도서관 자료선정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교수 추천도서를 도서관 장서로서 아무런 타당성 검증없이 구입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체계적인 장서개발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교수의 도서추천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를 고려한다면, 도서관 자료선정에는 사서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하리라 본다.

47) 사서 L과의 면담 (2000. 8. 8), 부산대학교 제1도서관 수서실.

48) Charles Burdick, "The Library and The Academic Community",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8(Sep. 1964), p. 159.

49) J. Schad and R. Adams, "Book Selection in Academic Librarians: a New Approach",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 30(Sep. 1969), pp. 437-442.

50) James Baughman, "Toward a Structural Approach to Collection Development",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 38(May 1977), pp. 241-248.

IV. 균형있는 자료선정을 위한 방안

- 사서의 주도성을 중심으로 -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대학도서관 장서구성에 있어서 교수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장서는 교수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가장 큰 이용자 층을 이루고 있는 학부 학생의 교육을 위한 기본 교재에서부터, 석·박사 과정의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서를 비롯한 다양한 학문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해 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서는 이제까지 교수에 의해 주도되었던 도서관 자료선정에 수정을 가하고 대학도서관 본래의 목적인 대학의 전체 구성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 도서관 자료선정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개선방안으로 다음의 것들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본장서 구축을 위하여 사서는 자료선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기본장서개발'이라는 개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선정업무를 살펴보면 사서의 선택영역은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 더러, 현재 수서과 사서들은 선정보다 추천된 장서를 취합하고 복본을 확인한 후 구입하는 업무에 치중되어 있다. 이것은 자료선정이 주로 추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장서를 개발해야 한다는 인식없이 당장의 업무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장서개발은 다른 누구도 아닌 사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선정을 통해서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자료입수 업무로 인해 도외시되고 있었던 장서개발, 특히 대학 도서관 '기본장서'를 구축하기 위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은 지금까지 사서가 단순히 장서를 수집하기 위한 주문과 확인업무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자료선정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첫걸음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선정에 있어서 기본 장서 구축과 더불어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선택'의 의미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부산대학교 내의 예산현황을 보면, 도서관 예산은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다.⁵¹⁾ 그러므로 장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에 앞서 한정된 도서관 예산을 사서가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자료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함으로써 이용자에게서 최대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지금까지 무분별한 추천에 의해 구입되던 도서를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한가를 다시 한번 평가한 후 구입하도록 하며, 구

51) 1999년을 기준으로 보아,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자료구입비는 서울대와 경북대를 필두로 전국 국립대학교 도서관에서 세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대학교 내 부속기관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도서관 예산은 전체의 40%를 넘고 있다.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8호(2000), p.204, 부산대학교 기획담당관실, 《통계연보》 제6호(2000), p. 43.

입 도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도서관 기본장서구축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또한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하므로 수서를 위한 성문화된 선정기준을 도서관 자체 내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업무 중심의 선정기준이 아닌 기본장서를 비롯하여 대학도서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연구서와 교양 자료, 참고자료 등을 이용자 요구와 도서관의 수준에 맞추어 수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정기준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의 주도에 의해서 가능해 질 수 있다.

셋째, 기본장서개발 개념과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선택개념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도서관 자료선정에 실질적으로 사서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모색해야 한다. 교수에 의한 도서관 자료선정은 도서관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오랜 관습이자 한국 대학도서관의 전반적인 현황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수는 직접 도서관에 자료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교수계획표나 강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도서관 장서구성과 학생들의 도서관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서가 갑자기 자료선정에 주도성을 가지고 참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 사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 학문 주제에 대한 전공서적을 선정하기에는 주제지식이 많이 부족한 편이고, 자료선정을 본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본장서를 구축하고 교수추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사서에게 주어진 여러 기회요소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사서에게 부족한 주제지식을 보완하고 각 학문의 기본장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수진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교수는 각 주제학문에 대한 지식과 연구동향, 각 학문의 기본장서가 될 수 있는 장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수진의 능력을 사서는 도서관 자료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주제관의 사서진과의 협력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주제관시스템을 고려한다면 자료선정은 수서과에서보다는 각 주제관의 참고사서에 의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들은 이용자인 교수와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수서과의 사서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으므로, 이용자의 요구에 더 민감할 수 있으며 주제관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인위적으로 다시 업무를 분담하지 않더라도 각 주제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주제 학문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자료선정에 임할 수 있다. 이러한 각 주제관 참고사서와 수서사서와의 협력을 통해 사서는 선정에 더욱 주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도서관의 합리적인 운영 및 도서관 발전 계획과 추진을 위한 모임으로 설치되어 있는 '도서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현재 도서위원회는 도서관 사업에 주체가

되어야 할 실무사서들의 참석을 배제한 도서관 경영진과 각 단과대 교수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들은 일년에 몇 번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위해 모이긴 하지만 실제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문외한일 뿐더러 도서관의 핵심이 되는 장서구축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서위원회에 사서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이것은 자료선정과 기본장서구축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해 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요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정도구의 활용을 들 수 있다. 현재 사서들은 인터넷 서점과 *Books in Print*, *Choice* 등을 비롯한 각종 서지도구 및 국내의 출판지와 서평 등 사실상 자료선정에 참고할 수 있는 선택도구는 산재한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정도구를 도서관 기본장서구축과 주제장서 선정을 위해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본장서 구축과 지금까지의 자료선정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서업무의 폭을 스스로 넓혀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던 도서관 기본장서 구축을 위한 문제도 그러하고, 도서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일상적 업무에만 급급하면서 도외시하였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가 눈을 돌려 직시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자료선정에 있어서는 각 주제분야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도서관 장서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과 장서개발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부산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장서 구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료선정에 있어서 교수진의 영향을 조정하고, 체계적으로 도서관 장서를 구성하기 위한 사서진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 문헌은 각주로 대신함>